

새로 발굴한 고소설 <雲水誌> 연구*

곽 정 식**

차 례

- | | |
|-------------------|------------------|
| I. 들어가기 | IV. <운수지>의 인물 형상 |
| II. <운수지>의 성립 과정 | V. <운수지>의 작가의식 |
| III. <운수지>의 서사 전개 | VI. 마무리 |

I. 들어가기

최근 학계에서 조선후기 장편소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운수지>는 본고를 통해 처음 소개되는 작품이다. 따라서 본고는 <운수지>의 이해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관해 考究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된다.

<운수지>는 최근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는 한기철 님에게서 입수하였는데, 상·중·하 3책으로 되어 있으며, 상 165면·중 204면·하 164면, 총 533면에 이르는 필사본 장편 국문소설이다. 3권 모두 회를 나누지 않고 則으로만 구분하여 상 30則·중 23則·하 22則으로 되어 있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6-321-A00672)

**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는데, 각 면은 12행, 각 행은 26자에서 34자까지로, 크기는 34×23.5cm이다. 글씨체는 단정하고 수려하여 그 자체로도 예술적 가치가 높은, 능숙한 달필의 궁체로 쓰여져 있다. 주요 등장인물에는 중국 宋代의 岳飛·文天祥·陸秀夫 등 忠義之士와 秦檜·萬俟卨¹⁾ 및 이들의 妻인, 王甲의 딸 녹주·명주 등 亂臣賊자가 있고, 북송 말에서 남송을 거쳐 元 말엽에 이르는 200여 년간이 시대적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악비·문천상·육수부 등은 죽어서 신선이 되어 있다가 적강하여 악문용·문채운·육자란 등으로 다시 태어나고, 지옥에 갇혀 있던 진회·만사설·녹주·명주는 金 태자와 元 공주로 각각 환생하게 되는데, 특히 이들 충의지사와 난신적자 사이의 갈등과 대결을 통한 중원 회복, 송실 중흥의 십년 功業이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품의 성립 과정을 비롯하여 서사 전개, 인물 형상,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그 특징적인 면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운수지>의 성립 과정

<운수지>는 중국 宋代(960~1279)의, 북방 이민족 遼·金·元에 대한 항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서두에서 요·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충신 岳飛(1103~1141)와 간신 秦檜(1090~1155) 사이의 대결을 통한 충신의 패배와 억울한 죽음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옥황상제에 의해 적강한 충의지사와, 난신적자의 인간 환생인 金·元의 태자, 공주들 간에 송조 중흥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통쾌한 복수극과 갖가지 파란곡절을 겪게 되는 충의지사들의 결연담을

1) 속표지에 雲水誌目錄이 있어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萬俟卨을 萬思高로 적어놓고 한글로 목기설이라 표기하였음.

허구적으로 결구해 놓았다. 따라서 <운수지>를 이해하기 위한 일차적 자료는 『宋史』·『元史』에서 찾을 수 있다.

12세기 초, 중국 동북지역에서 여진족 完顔部(阿骨打)가 점차 강성해져 金을 세우고, 1125년 遼를 멸망시킨 후 그 여세를 몰아 宋을 공격해 오자 宋은 金의 진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마침내 1127년에 무너졌다. 이때 徽宗·欽宗과 왕자, 后妃 등 3천여 명이 포로가 되어 북으로 압송되어 갔다. 이에 장수 宗澤은 흠종의 아우인 趙構를 황제(고종)로 모시고 杭州를 임시 수도로 하여 다시 송을 세웠는데, 이렇게 세운 송 왕조를 남송이라 한다. 그러나 남송의 고종은 金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였고, 이 틈에 秦檜·萬俟卨 등 主和派가 권력을 장악한 채 끊임없이 음모를 꾸며 抗戰派를 제거하였다. 이때 李綱, 趙鼎, 韓世忠, 岳飛 등이 희생되었다.

이들 중 특히 岳飛는 ‘중원 복귀, 송조 중흥’의 투지를 불태운 농민 출신의 의병으로 지략을 갖춘 데다 용감히 잘 싸워 여러 차례 대승을 거두었고, 金에 끝까지 대항하여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강화를 추진하던 秦檜 등 主和派의 음모에 의해 아들 岳云과 함께 투옥되었고, ‘莫須有’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독살되었다. 秦檜는 마침내 송 고종을 대신하여 1141년, 金이 제기한 굴욕적인 화친조건을 정식으로 받아들였다. 악비는 사후 22년만에 진상이 밝혀져 억울한 죄명을 벗었고, 유골은 杭州의 西湖 근처 棲霞嶺 기슭에 안장되었으며, 그의 祠堂도 함께 지어졌다. 이어 孝宗은 ‘武穆’이란 諡號를 내려주었고, 뒤에 寧宗은 다시 ‘鄂王’에 追封하였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악비를 ‘岳武穆王’이라 부르게 되었다.²⁾

이와 같은 악비의 사적은 이미 남송 말엽에 민간 설화인들에 의해 新

2) 진순진(권순만 외 역), 『중국의 역사』8, 한길사, 1995, 1-320쪽 : 김희영 편저, 『이야기 중국사』2, 청아출판사, 1997, 1-549쪽 : 박덕규 편저, 『중국 역사이야기』9~11, 일송북, 2005, 1-197쪽, 1-230쪽, 1-254쪽 참조

話의 소재가 되었는데, 남송 咸淳(1265~1275) 연간의 강담사 王六大夫가 대표적인 경우로서, 그가 악비·韓世忠 등 송조 중흥을 위해 용감히 싸운 명장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청중들이 환호하여(聽者紛紛)’ 민족영웅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을 표시했다고 한다.³⁾ 악비의 이야기는 宋이 멸망한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東窗傳說>로 전해지게 되었고, 元代에는 다시 이를 소재로 하여 孔文卿의 <地藏王證東窗事犯>, 金仁傑의 <秦太師東窗事犯> 등의 잡극이 창작되었으며, 明代에 와서는 사람들이 악비를 더욱 숭배하게 됨으로써 악비를 소재로 한 희곡과 소설들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成化(1465-1487) 연간의 <精忠記>와 그 후 湯子垂의 <續精忠>, 뒤에 <武穆王精忠傳>으로 改題하고 일명 <大宋演義英烈傳>이라고도 하는 <大宋中興通俗演義> 등, 이른바 ‘岳家軍小說’이 등장하였으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걸친 청나라 초기에는 이를 집대성한 것으로, 錢彩가 編하고 金豐이 增訂한 <說岳全傳>, 일명 <精忠演義>가 씌어졌다. 이로써 악비는 극작가, 소설가들이 묘사하기 좋아하는 영웅적 인물의 한 전형이 되었던 것이다.⁴⁾

이 가운데 岳家軍小說의 초기 작품으로, 明 嘉靖 31년(1562)에 간행된 熊大木(熊鍾谷)의 <大宋中興通俗演義>를 번역한 것으로 확인된 <武穆王精忠錄>이 현재 낙선재 문고에 소장되어 있다.⁵⁾ 이 작품은 曠嬪(?~

3) 박재연, 樂善齋本 『唐晉演義』·『武穆王貞忠錄』에 대하여, 『樂隱姜鋈先生華甲紀念論叢』, 창학사, 1992, 534쪽 참조.

4) 박재연, 앞의 논문, 533~535쪽 참조.

5) 박재연, 앞의 논문, 519~551쪽 참조. 한편 鄭炳昱은 <武穆王精忠錄>을 明人 託鄒元標 作 <岳武穆王精忠傳>의 번역인 듯하다고 하였다. 鄭炳昱, 『한국고전의 재인식』, 흥성사, 1979, 412쪽. 그런데 <大宋中興通俗演義>가 每卷 8則으로, 모두 80則으로 이루어져 全卷이 모두 回를 나누지 않고 則으로만 나누었으며, 이의 번역본으로 확인된 <武穆王精忠錄>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운수지> 또한 上卷 30則, 中卷 23則, 下卷 22則, 모두 75則으로 이루어져 있어 <武穆王精忠錄>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1763)이라는 소장자의 藏書印(映嬪房)이 찍혀 있는 데다 “세지 상장 집서 탕월(湯月) 상한(上澣) 필서(筆書) 지월(至月) 초구일(初九日) 시역(始譯) 호여 십칠일(十七日)은 나갓고 십육일(十六日)만의 십이권(十二卷)을 납월(臘月) 십사일(十四日) 필역(畢譯)”⁶⁾이란 筆寫記가 있는 것으로 보아, 1847년(헌종 13년) 낙선재가 신축되기 훨씬 이전인 영조 36년(1760)에 궁중에서 필사한 번역본임을 알 수 있다.⁷⁾ 이 밖에 1872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편자 미상의 『언문칙목록』에는 <岳王演義>가 기록되어 있으며,⁸⁾ 또 1915년 滙東書館에서 간행한 구할자본 고소설집 (1)의 <金山寺夢遊錄> 권말 광고문에도 국문필사본 <說岳傳>의 이름이 나와 있다.⁹⁾ 그리고 1938년 최남선이 每日新報에 게재한 소설 목록에는 ‘일반 서민의 가정에 보다 특히 상류 귀족사회에 한하여 읽히던 다수의 대부 소설’이라고 하여 <무목왕정충록>을 열거하였다.¹⁰⁾

일명 <大宋演義英烈傳>이라고도 하고, 뒤에 <武穆王精忠傳>으로 改題한 <大宋中興通俗演義>가 국내에 언제 유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충신 악비의 사적은 <大宋中興通俗演義>가 국내에 유입되기 이전부터 왕실을 비롯한 사대부층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柳成龍(1542~1607)의 <精忠錄跋>을 보면, 萬曆 甲申(1584년)에 한 역관이 燕都에 다녀와서 <精忠錄> 一帙을 임금께 올렸는데, 임금이 이를 보시고 嘉歎하시어 藝文閣에 내려보내 印出하도록 하면서 자신에게 발문을 짓도록 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유성룡은 남송이 중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3차례 있었으나, 그때마다 소인들로 인해 실패했음을 밝

6) 음력 11월 9일 번역에 착수하여 12월 14일에 번역을 마쳤는데, 17일간은 외출하여 실제 번역한 日數는 16일간이다. 여기서 ‘상장’은 ‘上章’ 곧 ‘庚’이요, ‘집서’는 ‘執徐’ 곧 ‘辰’이다.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155쪽 참조

7) 조희웅, 앞의 책, 155쪽 각주 23) 참조

8) 강전섭, 『언문칙목록』(諺文冊目錄) 小考, 사재동 편, 『韓國敍事文學史의 研究』 V, 中央文化社, 2109-2140쪽 참조

9) 조희웅, 『고전소설이본목록』, 집문당, 1999, 155쪽 참조

10) 최남선, 조선의 가정문학, 매일신보 1938(『六堂崔南善全集』 권9, 현암사)

히고, 특히 악비의 경우에는 중원을 거의 다 회복하던 중에 秦檜가 奸計를 꾸미고 高宗이 미혹하여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하면서, 우리 임금께서 嘉歎하시고 印出하여 널리 전하고자 하신 뜻은 대개 충효가 천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나라의 흥망이 또한 이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¹⁾ 실제로 奎章閣에는 內賜記가 있는 <會纂宋岳鄂穆武王精忠錄>이 <大宋中興通俗演義>의 뒤에 묶여서 전해오고 있는데, 柳成龍의 跋文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宣祖 18년(1585) 藝文閣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이본이 한 부 전하는데, 1501년 明나라 陳銓이 간행한 것으로 1709년 숙종의 御製序文이 실려 있다.¹²⁾ 이렇게 악비의 사적이 일찍부터 상층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 낙선재본 <무목왕정충록>의 맨 끝권에는 궁체로 정성 들여 쓴 御製祭文이 실려 있는데, 肅宗(재위 1674~1729)은 선조 18년(1585년)에 開刊한 <精忠錄>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模寫하도록 하고, 악비를 永柔(지금의 平安南道 平原郡 永柔面)에 있는 사당에 제갈량과 합향하고 악비 일가의 추상같은 충효지심을 기리고자 한다고 하였으며,¹³⁾ 英祖(재위 1725~1776) 또한 庚戌年(1730년)에 지은 제문에서 <精忠錄>을 書案에 두고 읽었다고 하고, 宣祖·肅宗의 遺志를 생각하면 그 느낌이 간절하다고 하여 악비를 위해 祭를 지내는 뜻을 자세히 밝혀 놓았다.¹⁴⁾ 아울러 1721년에 중국어 학습서로서 간행한 『伍倫全備諺解』의 인용서목에도 <岳武穆精忠傳>의 이름이 보인다.¹⁵⁾

11)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권17, 精忠錄跋, 萬曆甲申 有譯官來自燕都 以精忠錄一帙進者 上覽之嘉歎 下書局印出 而題跋之命 謬及於愚臣…而國之廢興 存亡之關焉 今是編也 其意在於課忠責孝 有勸有懲 其感於人心者 深矣.

12) 박재연, 앞의 논문, 545~546쪽.

13) <岳武穆特令合享於永柔諸葛武侯之廟論音>, 『列聖御製』, 列聖御製出版社, 京城, 1924, 247쪽(박재연, 앞의 논문, 544쪽 재인용).

14) 박재연, 앞의 논문, 542~543쪽 참조.

15) 影印本 伍倫全備諺解, 『原本國語國文學叢林』 22권, 大提閣 1986, 98쪽. 1696년(숙종 22년) 司譯院에서 번역하다가 중단하고, 그 후 1709년(숙종 35년)에 司譯院 提調 金昌集이 번역 편찬하여 완성하였으며, 1721년(경종 1년)에는 劉克愼이

실제로 <무목왕정충록>은 宋 徽宗·欽宗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金의 남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통해, 악비의 영웅적인 활약상과 함께 진회 一族의 음모로 악비가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그려놓고 있으며, 나중에 진회가 冥司에 들어가 업보를 받는다는 것으로 결말을 삼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李綱·韓世忠 등 명장들의 事蹟까지 부연하고 있다. 이로써 <무목왕정충록>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東窗傳說을 비롯한 민간전승의 허구적인 이야기까지 수용했음을 알겠는데, <운수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간추려 서두에 제시하고 있다. <운수지>는 이어 元末(1350~60년대)을 배경으로 옥황상제가 송조 중흥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 신선이 되어 있는 악비·이강·한세충 등 충의지사를 인간 세상에 적강하도록 하고, 이들로 하여금 각자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결구함으로써 난신적자의 인간 환생인 金 태자·元 공주를 상대로 하는 통쾌한 복수극이 펼쳐지게 된다. 이로 보면, <운수지>는 충의지사들이 대를 이어 ‘송조 중흥’을 위해 忠君愛國하는 이야기로서 작자의 창의성에 의한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등장인물들의 적강과 환생, 가족의 이산과 재회, 남녀의 사랑과 결연, 그리고 軍談, 道術, 變裝, 戲弄, 妖術 등 여러 가지 화소가 도처에 삽입되어 흥미를 북돋우며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을 감안하면, 조선 후기의 다양한 소설 유형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¹⁶⁾

이와 같이 <운수지>가 岳家軍小說, 특히 <무목왕정충록>을 제재적 원천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라고 보면, 그 시기는 <무목왕정충록>이 1760년에 번역되었다는 筆寫記의 기록을 근거로 대략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 사이라고 일단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각본이나 활자본이 없는 데다 한글 필사본이 유일본으로 전해오는 것을 보면, <운수지>가 貫冊家에서 貫代나 賣買가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또 18

私費로 간행했다고 한다.

16)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서울대본 <옥원재합기연>에 필사되어 있는 장편 소설 목록이나, 19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洪羲福의 『第一奇諺』 서문에 들어 있는 장편소설 목록에도 <운수지>의 서목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운수지>의 성립 연대를 되도록 늦추어 잡는 것이 바람직할 터인데, 성립 연대를 필사 연대와 거의 같은 시기로 늦추어 잡더라도 19세기 중엽에는 성립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운수지>의 각권 말미에는 “괴스모췌상완필등”(상) · “괴스유화월상완필등”(중) · “경오샤월초사일필등”(하)이라는 필사기가 있는데, <무목왕정충록>이 1760년에 번역된 것을 감안하면, 이때의 ‘괴스’와 ‘경오’는 이르면 1809년에서 1810년, 늦으면 1869년에서 187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잠깐 필사 양태에 대해 살펴보면, 반드시반다시(상, 155면), 촌설설노(중, 5면), 허흔하흔하나(중, 11면), 녹쇼데디쇼데디쇼왈(하, 64면), 그림즈도그림즈도(하, 89면) 등에서처럼 중복 필사를 포함하여 誤字, 脫字이 자주 나타나는 데다 부분적으로 구절 혹은 행이 결락되어 의미 연결이 곤란한 경우까지 있다. 또 스키여하다(상권, 3면, 슬히여하다, 憂), 두르현다하니(상권, 131면, 돌이키다, 反) 등 고어를 사용하고 있고, 남송 인물인 萬俟說을 만스설(萬思高)과 목기설로 혼용하고 있으며, 하권 53면에는 “슴천 니를 가 동으로 금각산 밧글 이르면 요스이 등국스름이 세상을 피하야 숨어 잇더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유일본으로 전해오는 <운수지>가 국내 창작소설로서 轉寫本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18세기 중엽 이후에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원순모음화 현상¹⁷⁾을 비롯하여 18세기 후기에 볼 수 있는, 有氣音을 ㅍ音과 ㅎ으로 분리 표기하는 예¹⁸⁾가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또 1800년대를 전후하여 완성된 ·>ㅏ 음운변화를 실현한 예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18세기 말 이

17) 김주필, 18세기 역서류 문헌과 왕실문헌의 음운변화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권 2호, 어문교육연구회, 2005, 29~57쪽.

18) 곽충구, 18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4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0, 16쪽.

후의 언어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보겠는데, 전반적인 문헌 표기에서의 보수적 성향을 고려한다면, 필사 연대는 19세기 초에서 중엽 사이로, 창작 연대는 이보다 약간 앞서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때는 西勢東漸의 물결 속에서 식민주의적 서구 팽창 세력이 본격적으로 밀려오던 시기로서, 이른바 斥邪衛正論 또는 그 운동이 본격화되었던 만큼,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이 충의사상의 고취를 근간으로 하는 <운수지>의 성립 과정에 중요한 배경적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Ⅲ. <운수지>의 서사 전개

<운수지>의 題名은 속세를 떠나 은거하는 삶을 의미한다. 작품의 결말부를 보면, 충의지사들이 황제의 갑작스런 승하를 계기로 십년 功業을 일장춘몽에 부치고 匹夫書生으로 돌아가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다가 끝으로 羽化登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말부에도 불구하고, <운수지>는 송실 회복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충의지사와 난신적자 사이의 투쟁과 복수, 그리고 이에 부차적으로 재자가인들의 결연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운수지>의 서사 전개 양상을 큰 단락을 지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岳飛의 忠勇과 寃死

武穆侯 岳飛는 태어날 때 큰 새가 지붕에 날아와 울고, 등에는 ‘精忠’이란 글자가 씌어 있으며, 8세가 되자 도사를 찾아가 학업을 닦는다. 북방의 遼·금이 중원을 침범하자 여러 차례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하고, 그 공으로 武穆侯에 봉해진다. 송실 회복을 위해 끝까지 오랑캐와 싸울 것을 주장하다가 재상인 秦檜와 대립하게 되는데, 진회는 역모를 꾀한다

는 혐의를 씌워 악비를 참소하고 하루에 金字牌를 12번이나 보내 환군하게 한다. 마침내 악비는 세 아들과 함께 진회의 칼에 죽고 말았으며, 딸마저 우물에 투신하여 자결한다. 구천에 오른 악비가 진회 一族의 불충한 죄를 옥황상제께 고하자, 상제는 진회 등 4인의 奸賊을 잡아오게 하고 풍도옥에 가둔다.

2. 忠義之士의 神仙 謫降과 亂臣賊子의 인간 환생

옥황상제가 진회 일족을 풍도옥에 가두고 醉夢에 들었다가 元 天曆 연간에 깨어나서 宋의 충의지사와 난신적자가 몇 명인지를 묻는다. 이에 왕교위가 岳飛·文天祥·陸秀夫·韓世忠·謝枋得·李綱·趙鼎·陳文龍·張世傑 등이 충의지사로 신선이 되어 천당에 와 있으며, 秦檜·萬思高, 이들의 처인 綠珠·明珠가 난신적자로서 지옥에 갇혀 있다고 아뢰다. 상제가 충의지사들에게 소원을 묻자 모두 오랑캐를 멸하지 못한 것이 원통하다고 대답한다. 이에 상제는 충의지사를 적강하게 하고, 난신적자를 환생시켜 충의지사로 하여금 소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악비는 岳顯의 아들 岳文龍, 문천상은 文圭의 딸 文彩雲, 한세충은 韓卓의 딸 韓桂枝, 장세걸은 張綱의 딸 張雲英, 육수부는 陸平의 딸 陸子蘭, 사방득은 謝琨의 딸 謝紅玉, 조정은 趙閱의 딸 趙慧蘭, 이강은 李景의 딸 李文英, 진문용은 陳舒의 딸 陳彩鸞으로 각각 태어난다. 그리고 진회, 만사설은 金 태자 올이아·힐니대로, 그들의 처 녹주·명주는 元 공주 雲華·月華로 각각 환생한다.

3. 遼·金の 평정과 宋朝 中興

악문용은 어려서 張士誠의 난에 부모와 헤어져 걸식하다가 철관도사를 만나 수학한 후 증원으로 들어가고, 문채운과 한계지는 遼·金이 다시 강성해져 나라가 어지러운 때에 기묘한 방법을 발휘하고자 남북을

개착하고 부모 몰래 집을 떠난다. 문채운이 이름을 문경천이라 하고 하북으로 태수 장강을 찾아가는데, 장강이 딸 장운영의 배필로 문경천에게 청혼한다. 문경천은 장운영의 재주를 아껴 함께 중원을 회복하려는 뜻에서 허락하고 정식 혼인은 나라가 안정된 뒤에 올릴 것을 약속한다. 육평의 딸 육자란과 사곤의 딸 사홍옥은 형제같이 지내던 중 元 장수 달이용의 병란에 육자란이 부모를 잃게 되어 함께 피란하다가 도중에 조열의 딸 조혜란을 만나 3인이 금화산 위부인에게 의탁하여 병서를 익힌 후 중원 회복을 위해 북으로 들어간다. 육자란이 이름을 육봉일로 고치고 문경천을 찾아가서 송조 중흥을 위해 먼저 遼·金을 칠 것을 약속한다. 문경천이 자칭 分義將軍이라 하고, 육봉일·조혜란·한계지·장운영·사홍옥과 행군하여 요·금을 평정하고, 태자 울이아·힐니대를 사로잡아 환군하자, 하북 태수 장강이 잔치를 열어 출전 장수를 하례한다. 문경천이 장강에게 남송 충의지사의 자손으로 어찌 원나라를 섬기느냐고 하자, 장강 또한 송조 중흥에 흔쾌히 응한다. 문경천이 大宋忠義將軍이라 자칭하고 조씨 자손을 구하는 한편 南征을 준비하는데, 元 황제가 이를 두려워하여 달이용을 보내 하북을 치게 한다. 육봉일이 대적하여 달이용을 죽인다. 이경의 딸 이문영은 문장이 뛰어난 데다 부모의 권유가 있어 과거에 응하기 위해 변복하고 진서의 딸 진채란과 함께 상경하다가 걸인 행색의 악문용을 만난다. 악문용·이문영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병부시랑, 한림학사를 제수받고, 운화·월화 두 공주의 부마로 간택되나 부모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옥중 신세가 되었다가 풀려난다. 악문용·이문영·진채란이 元 황제의 명을 받고 출정하여 송조 흥복을 꾀하는 문경천·한계지·육봉일·장운영·사홍옥·조혜란과 대적한다. 문경천은 악문용이 악비의 후예임을 알고 송실 회복에 동참하도록 그를 유인하는 술책을 쓴다. 악문용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송실 회복에 동참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는데, 이문영·진채란이 몰래 문경천을 찾아가 생사를 같이하기로 하고, 문경천 이하 여러 장수가 女化爲男임을

알게 된다. 元 황제는 악문용이 변심한 것을 알고 환군을 재촉하는데, 악문용이 환군을 미루다가 元 장수 달니마·양소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처한다. 문경천·이문영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악문용은 元 황제에게 회보하여 君臣之義를 끊고 자칭 大宋分義大將이라 한다.

한편 악현·문규·이경 부부는 張士誠의 병란 때 피난하다가 서로 만나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악현이 徽宗 황제의 손자 조복을 산중 목장에서 데려다가 修身治國之道를 가르친다. 마침 서령이란 자가 이를 알고 있어 문경천이 그를 데려오게 하여 황제로 삼고 百官의 位次를 정하여 400년 大宋의 威儀를 이어가게 하니, 이때가 1355년이다.

4. 元 公主의 奸計와 行惡

元 공주 운화·월화는 악문용을 사로잡아 혼인 약속을 어긴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하고, 이름을 홍우·이태로 고치고 신분을 감추어 宋으로 들어간다. 이문영이 이들을 문경천에게 천거하고, 문경천은 다시 황제께 아뢰어 홍우를 악문용의 휘하에, 이태를 이문영의 휘하에 들게 한다. 홍우·이태가 간계를 꾸며 악문용을 鐵籠 속에 가두고 혼인 약속을 지키라고 하여 꺾박하나 악문용이 끝까지 거절한다. 육봉일이 金 태자 힐니대를 이문영으로 꾸미고 元 태자 달니마의 편지를 위조하여 홍우·이태를 속인 후 육례를 올리자고 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에 울니아를 철룡 속에 가두어 악문용을 구출한다. 운화·월화는 악문용·이문영이 이미 혼인 약속을 어겼으므로, 두 사람을 철룡 속에 가두어 둔 채 납채의 예를 올리는데, 뒤에 두 사람이 金 태자 울리아·힐니대임을 알고 대경실색한다. 운화·월화는 궁옥에 갇힌다. 강남의 吳王이 중원을 도모하기 위해 徐達, 常遇春을 보내 황성을 치게 하는데,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운화·월화가 울리아·힐니대를 설득하여 도망한다. 도중에 宋 황제를 찾아 중원으로 향하던 악현·문규·이경을 만나자, 이들을 협박하여 金으로 끌고가 자신들을 악문용·이문영과 동방급제한 元皇의 신하라고 속

이고, 황은을 배반하고 국혼을 저버린 자식들을 불러 황명을 좇게 하라고 꾀박한다. 악현·이경이 거절하자 태도를 바꿔 악문용·이문영과 일찍이 혼인을 약속했음을 고하고 舅父之禮를 갖춘다.

5. 宋 皇帝의 昏暗, 악문용의 元 征服

악현·문규·이경이 金으로 끌려간 뒤 부인들은 도둑을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강남으로 돌아가다가 악현의 처 하부인, 이경의 처 흥부인은 한계지를 만나 하북으로 들어간다. 문경천·육봉일도 산곡을 헤맨 끝에 모친 서부인·정부인을 찾게 되고 사홍옥의 모친 옥파를 만난다. 문경천이 白龍潭을 지나는데, 운무 자욱한 곳에 白頭仙翁이 나타나, 송실을 증흥하여 선조의 백년 원수를 갚았음을 칭찬하고, 국운이 長遠치 못해 화덕이 南에 왕성하여 참 天子가 다시 나올 것이니 하북을 보존하여 천명을 따르라고 한다. 문경천이 뜻와 화친한 후 회군한다.

한편 악문용이 부친 악현 등 3老公을 찾기 위해 金으로 들어가자, 운화·월화가 가짜 3老公을 내세워 궁중으로 유인한다. 악문용은 가짜 3老公이 남송의 역적 만사설의 후손 만기, 하도의 후손 하망, 니즘의 후손 니환임을 알아내고 죽여버린다. 운화·월화는 이미 3老公을 신고 元으로 도망한 뒤여서 악문용은 金 태자 올리아·힐니대를 붙잡아 元으로 향한다. 그 사이 운화·월화가 하북 황성에 들어가 황제에게 장차 악문용이 모반할 것이라고 하자 어린 황제는 두려워하여 謀士를 구해 계교를 찾으라고 한다. 또 문경천·육봉일·이문영이 모두 여자임을 알려주고, 문경천을 황후로, 육봉일을 첩여로, 이문영을 소의로 봉하고, 악문용은 일찍이 元 황제와 혼인 약속을 했으니 성사가 되게 하면 宋과 元이 다투지 않아 좋을 것이라고 한다. 이때 악문용은 元을 쳐서 황제의 항서를 받고 3老公을 구한 후 진황후·장귀비·태자 올팔이를 볼모로 잡아 회군한다.

6. 송 황제의 승하와 불행한 國運

황제가 악문용을 연왕에 봉하여 상도로 갈 것을 命하고 이문영·문경천·육봉일로 재상을 삼는다. 악문용이 君父 곁에 있기를 원하자 황제는 중국의 왕을 원하느냐고 꾸짖는다. 황제가 장차 문경천·이문영·육봉일로 后妃 간택을 하겠다고 하고, 악현에게는 악문용을 元의 부마로 삼아 胡元을 막게 하라고 한다. 악현 등 3老公과 문경천 등은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운화·월화의 奸計임을 짐작한 문경천 등이 진황후가 갇혀 있는 곳에 첩자를 보내 그 거처를 알아내고 거짓 편지를 보내는 한편, 올이아·힐니대를 악문용·이문영으로 꾸며 行禮를 치른다. 뒤늦게 속은 것을 알게 된 운화·월화는 蜀으로 끌려가 빈 암자에 머무른다. 황제는 악문용이 모반할 것이라는 운화·월화의 말을 믿고 연일 악문용에게 조서를 내려 상도로 갈 것을 재촉한다. 문경천·육봉일·이문영은 악문용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 간신 황봉·조린을 幕下로 삼아 떠남으로써 미리 화근을 막아야 한다고 하여, 악문용이 이를 천자에게 간청해서 허락을 얻고 상도로 향한다. 악문용이 황성을 떠난 후 천자가 문경천·육봉일·이문영을 후비로 삼으려 하자, 문경천 등이 황금 천냥으로 絶代佳人 양옥진을 구하여 궁중에 들여보낸다. 미색에 혹한 천자는 그녀를 昭儀에 봉한다. 문경천이 천운이 기울었음을 말하고 名節을 지키기 위해 떠나기로 하자, 육봉일·이문영·한계지·사홍옥·장운영·진채란·조혜란이 함께 蜀으로 향한다. 황제는 양옥진을 황후로 삼고 충신을 멀리한 채 황음무도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죽는다. 老臣 문규·이경 등이 이를 연왕에게 알리고 국운이 불행함을 한탄한다. 연왕이 황성으로 돌아오자 문무백관이 연왕을 추대하여 옥새를 받들어 올리니, 연왕은 통곡하고 印綬를 땅에 던지며 본심이 아니라 하고, 나라의 위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문경천·육봉일·이문영 3정승을 찾아 나신다.

7. 연왕 악문용과 8娘의 婚事

황성을 떠나 蜀으로 온 문경천 등이 모두 숙녀로 돌아가 천문을 공부 하던 중 국운이 불행하여 천자 승하하신 것을 알고, 때를 기다려 돌아갈 것을 의논한다. 이때 문채운이 천문을 보고 연왕이 자신들을 찾아 서쪽으로 오고 있음을 말하자, 조혜란이 신선이라 속이고 연왕을 맞이하여 문채운의 글귀로 운화·월화가 수놓은 비단과 보검을 전한다. 운화·월화는 악문용이 왔음을 짐작하나 선도를 익히는 사람으로 속객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고, 악문용은 문승상 일행을 찾다가 樵童의 거짓말에 속아 황성으로 돌아가서는 여자들에게 속았음을 알게 된다.

한편 문채운을 비롯한 8娘은 국운이 불행한 것을 천명이라 하고, 지모 재략이 쓸 데가 없음을 한탄하다가 운화·월화를 어떻게 처치할 지를 의논한다. 조혜란이 운화·월화를 속여 천상 옥경에 오를 때가 되었다고 하여 유인하자, 문채운 등이 仙緣을 맺는다고 하여 희롱하다가 淫婦 奸賊의 죄를 물어 叱辱한 후, 수레에 실어 위남촌에 당도한다. 위남촌에 30년 묵은 妖狐가 있어 변화불측하다는 말을 듣고, 일행이 이를 퇴치하고자 客館에 유숙하는데, 기생 진월이 茶를 올리며 場中에 들기를 청한다. 이때 연왕이 몰래 엿보다가 풍운의 將相이 요조숙녀가 되어 있음을 알고는 놀라 정신을 잃었다가 전날 문채운에게 속은 부끄러움을 갚으려고 부적을 써서 던지니, 홀연 일진광풍이 일어나고 문채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한계지·사홍옥이 십리 밖 절벽 위의 나무 구멍에서 문채운을 구원해오자 육자란이 이를 妖狐라고 하여 불대위 죽이고 문채운을 수소 문하는데, 행방이 묘연하여 일대 소란이 벌어진다. 연왕은 자기 때문에 문채운이 죽었다고 하여 祭文을 지어 哀哭하고, 육자란 또한 자신의 잘못이라 하여 죽으려고 하자 모두가 만류하여 일행이 연왕과 함께 위남촌을 떠난다. 일행이 황성에 당도한 후 衣籠 속에서 문채운이 나와 모친 서부인을 뵈고 연왕의 무례한 희롱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자, 서부인이 예의에 어긋났다고 하며 혼사 문제를 여러 부인들과 의논한다.

홍부인은 연왕이 먼저 失體하고 문채운이 受辱이 있으므로 本身으로는 연왕을 좇을 수 없다고 하고, 자기 딸 이문영을 서부인의 양녀로 삼고, 문채운을 자신의 양녀로 삼아 이름을 사약난으로 고쳐 육례를 행함이 좋겠다고 한다. 혼사가 거론되자, 악문용은 자신이 잘못하여 문채운을 죽였다고 하고 홀로 殯所를 지키다가 지하의 문채운을 따르겠다고 한다. 3老公과 여러 부인들이 달래어 마침내 사약난·육자란·이문영으로 3부인을 삼고, 장운영·사홍옥·조혜란·진채란·한계지로 5첩을 삼아 성대한 혼례식을 올린다. 이때 연왕은 사약난이 비로소 문채운임을 알고 첫날밤을 지내는데, 죽은 진월이 꿈에 나타나 作戲하므로 제물을 준비하여 원혼을 달랜다.

8. 악문용의 前生 報讎와 安貧樂業, 羽化登仙

연왕이 백관의 하례를 받던 중 신하들이 조씨 아이를 얻지 못했다고 하고 황제 옥새를 받들어 올리자 연왕은 어떻게 하면 충의에 부끄럽지 않겠느냐고 하며 탄식한다. 문채운이 지난 날 白龍潭을 지날 때 神人이 나타나서 천명이 응하여 吳王이 일어났음을 알려주었다고 하고, 십년 功業을 일장춘몽에 부치고 匹夫書生으로 돌아가 대중의 바라는 바를 끊어 버리라고 한다. 연왕이 오왕에게 사자를 보내 중원을 西湖八景과 바꾸어 풍월주인이 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하자, 오왕이 이를 허락하고 하례한다. 연왕이 雲水庵을 지어 雲水先生이라 하고 詩中天子가 되어 江山之樂을 즐기며, 金·元을 過去之事로 돌려 舊怨을 잊고 운화·월화를 산중에 들여보내 선도를 닦게 한다. 이문영·진채란이 과거를 보려고 남북을 하고 場中에 들었다가 소경옥·조운경이란 선비에게 글을 지어주고 나왔는데, 소경옥이 장원, 조운경이 제2에 합격한다. 운수선생이 詩會를 열고 이들을 초대하는데, 소경옥은 10년 전 병화에 잃어버린 육자란의 동생이고 조운경은 조혜란의 동생임이 밝혀져 가족상봉을 한다.

한편 선도를 닦기 위해 산중에 들어간 운화·월화는 老師에게서 積怨

이 많은 탓에 인연이 없다고 하여 거절당하고, 꽃을 씹으면 前生事를 알 수 있는 金花 한 가지를 얻는다. 꽃을 씹은 두 사람은 자신들이 왕갑의 딸로서 진희·만사설과 함께 악비를 죽여 풍도죄인이 되었다가 인간으로 환생한 것을 알게 된다. 또 금화 한 가지를 훔쳐 올리아·힐니대에게 주어 씹게 한 결과, 올리아·힐니대가 자신들의 전생 배필임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은 악문용 일가를 죽이려고 사방에 불을 지른다. 악문용은 詩酒聲色에 여념이 없는데, 문채운이 흥초선을 휘둘러 불을 끄고 造化之術을 부려 4인의 凶賊을 사로잡는다. 악문용이 이들을 심문하여 前生事를 알고는 이마에 전생 성명을 써서 칼로 베어 죽인다. 이후 악문용은 淸儉한 뜻을 숭상하여 띠집을 짓고 魚樵하며 赤松子를 구하여 安貧樂業으로 지내는데, 8娘과 더불어 칠순에 이르도록 모발이 세지 않고 肌膚가 빙설 같으며, 슬하의 8자3녀는 벼슬이 다 공후에 오른다. 어느 날 악문용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8娘과 함께 羽化하여 공중에 올라 봉래산 삼신산을 향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운수지>는 신선으로 적강한 충의지사와, 金·元의 태자·공주로 인간 환생한 난신적자 간의 투쟁과 복수를 통한 유교적 이념의 승리를 중심축으로 하고, 여러 주변 인물들이 등장하여 남녀의 결연 및 가족의 이산과 재회 등 다양한 갈등을 엮어나간다. 특히 난신적자인 운화·월화의 行惡이 작품의 서사 전개의 중간 중간에 끼어 들어가 여러 갈등을 일으키며 작품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 난신적자들이 한데 결합하여 불을 지르고 충의지사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데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가 해결의 대단원에 이르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운수지>가 적강, 환생, 군담, 도술, 변장, 결연, 악행, 요술 등 여러 가지 화소들을 차용하여 서사 전개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 작품이 조선후기의 다양한 소설 유형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자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충의지사들이 忠君愛國하는 이야기로 결구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IV. <운수지>의 인물 형상

<운수지>에 등장하는 인물 군상은 충의지사와 난신적자로 크게 대별되며, 또한 보조적 인물들이 이들을 돕게 된다.

충의지사에는 남주인공 악문용을 비롯하여 8명의 여성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한결같이 오랜 無子 끝에 祈子精誠으로 태어나 才德을 겸비하고 충효겸전하여 유교적 이념에 매우 충실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조선 후기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전형적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선 주목되는 존재는 남주인공 악문용의 형상이다.

어려서 피란길에 부모와 헤어져 철관도사에게 수확하고 ‘시서빅가어와 티을육도와 풍운둔갑지술을 무불능통’하게 되어, 이문영·진채란을 만나 원나라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공주의 부마로 간택된다. 그러나 혼사를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하여 행례를 미루다가 황제의 명으로 하북에 출정, 송실 중흥을 위해 의병을 일으킨 문채운 등과 대적한다. 이때 문채운이 남송 충신 악비의 자손임을 알고 악문용을 유인하자, 악문용이 胡元에 失節한 것을 크게 부끄럽게 여겨 싸움을 그친 채 환군을 지체하다가 황제가 보낸 자객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한다. 문채운이 이를 알고 구원하자, 악문용은 君臣之義와 甥賓之禮를 끊는다는 것을 통지하고 자칭 大宋分義大將이라 하여 송실 중흥에 동참한다.

이처럼 악문용이 胡元에 失節하는 인물로 그려진 까닭은 다분히 개인적인 복수의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서두에서 보듯이, 악문용의 전생 인물인 악비는 王甲의 두 딸인 녹주·명주의 청혼을 받고 여자 행실에 鄭衛의 풍이 있을 뿐, 孟光의 덕이 없음을 들어 거절하였는데, 이에 원한을 품은 두 사람이 훗날 남편인 진희·만사설과 공모, 모반의 혐의

를 씌워 악비를 무참히 죽였던 바, 악비는 이를 옥황상제에게 고하였고, 옥황상제는 9인의 충의지사를 진회 등 4인의 난신적자와 함께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 각자 그 원을 풀게 한다. 이에 따라 송조 중흥을 둘러싼 충의지사와 난신적자 간의 대결을 그려내는 한편, 혼사 문제로 인한 개인적인 복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악문용이 악비의 신선 적장으로, 또 元 공주 운화·월화의 전생이 녹주·명주라고 하는 인물 설정에서 악문용의 失節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악문용이 운화·월화와 함께 진회·만사설의 인간 환생인 金 태자 올이아·힐니대를 붙잡아, ‘전신 성명을 이마 위에 써 붙이고 긴 칼로 마디마디 베어 죽인다’고 함으로써, 전생 원수에 대해 철저히 복수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선성이 디경터로하여 왈 올이 양호난 과연 전신 진회 목기설이요 운월 양간은 전신 녹두 명두냐 인하여 다시 칼을 치고 츠탄하여 왈 하늘이 반드시 날노 하여금 다시 조선의 김흔 원수 이 도적비로 함기 적국의 나 일성을 죠통히되 오히려 칼노 버히지 아니함은 너 아지 못하여 그려히미라 하고 즉시 좌우나줄을 명하여 철스로 그 흉적을 스간을 목거 압희 세우고 그 전신 성명을 이마 우희 쓰고 긴 칼노 마디마디 버히니 놀난 피 실들기 갖치 흐르더라(권下, 156~157쪽)

이와 함께 악문용은 宋의 조씨 왕조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신장은 팔척이요 범의 멀이요 용의 이마요 꿈의 허리요 봉의 눈’을 지니고, ‘팔십근 운무극을 희롱하며’ 문채운과 內外陣을 갖추어 송조 중흥을 이루어낸 데 이어 어린 황제가 황음무도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승하하자, 천하 신민이 다 악문용을 황제로 추대하기를 원하여 옥새를 받들어 올리는데, 악문용은 어찌하면 충의에 부끄럽지 않겠느냐고 하여 천하에 조씨 자손을 찾도록 하고, 황제 능소에 치제한 후 大將節鉞과 연왕 印綬를 능 옆에 묻어버린다. 그리고 끝내 조씨 자손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천명이 다했음을 탄식하고, 중원을 吳王에게 사양한 채 자신은 3처 5첩을 거느리고 西湖로 돌아가 雲水庵을 짓고 풍월주인으로 詩酒聲色을 즐긴다. 여기서 雲水란, 구름이 허한 데서 일어나 하늘에 가득 하였다가 잠깐 사이에 허한 데 돌아가고, 물이 적은 데서 시작하여 사해에 가득 찼다가 번연이 다시 적은 데로 나아가듯이,¹⁹⁾ 차고 기우는 것이야말로 천지 기운이란 뜻이다. 그리고 마침내 운화·월화 등 凶奸을 죽여 원수를 갚은 후에는 몸소 밭 갈고 魚樵하며 安貧樂業으로 지내다가 3처 5첩과 더불어 登仙한다.

한편 악문용을 제외한 8명의 충의지사는 남북을 개척한 여성영웅으로 그려진다. 북송 말에서 남송 말에 걸쳐 송조 중흥을 위해 충의를 다한 文天祥·陸秀夫·李綱·張世傑·韓世忠·陳文龍·謝枋得·趙鼎이 신선으로 적강한 인물인데, 자색이 뛰어나고 기예에 능할 뿐더러 지혜와 용맹, 變化之術이 龍虎를 능가하여 귀신도 측량치 못하는 병법의 신인이라고 하였다.

달빛처럼 서리 나리며 나는 비암이 벽틈으로 드리오니 봉일(육자란; 필자 주)이 칼을 의지하고 날여 홀연이 변화하여 구름 스이로 청용이 공중의 날어들으며 바람 우레를 크게 부니 나는 비암이 변하여 흰잔느비 되어 용기 우회 안즈니 청용이 오치를 변화하여 무지게 돌니며 용기에 흰 잔나비를 늘려 싸희 찌러지니 양쇼난 두 팔을 일코 봉일은 그 팔을 버혀가지고 영둥의 도라오니라(권上, 133~134쪽)

승상(문채운; 필자 주)이 빅농담을 향하여 스비하고 옥병을 기우려 세 번 뿌리니 홀연이 바람과 우레 크게 지어 급흔 비 들이워 어름이 되니 불이 일시에 꺼지고 황노곡의 폭뢰 퍼이니 산의 물이 덥히고 북군이 머리 타고 이마 탄 지 티반이요...오병이 물의 빠진 지 닷토여 잡고 오르며 슬피 부르지져 슝 살니라 하니(권中, 138~139쪽)

19) <운수지> 하, 160쪽.

이리하여 송조 중흥은 대체로 여성영웅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 특히 문채운은 애초에 송조 중흥을 위해 부모 몰래 남복을 개착하고 가출한 경우로 그 구심점이 되는데, 한계지와 함께 하북에 들어가 이름을 문경천이라 하고,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켜 피란길에 가족과 헤어져 금화산 위부인에게서 병서를 익힌 육자란·사홍옥·조혜란 등을 선봉장·후군장·종사관으로 삼아 북방에서 다시 강성해진 요금을 쳐 멸한다.

문경천이 크게 군스 이십만을 거느려 장디에 올라 장스의 군네를 밋고 즈칭 분의장군이라 하고 육봉일노 선봉장을 습고 사홍옥으로 후군장을 습고 한계지로 좌익장을 습고 장운영으로 우익장을 습고 조혜란으로 종스관을 삼고 니문통으로 운량관을 습고 횡군할 시……문경천은 동문을 쳐 파하고 드러오며 한계지는 북문을 돌파하고 드러오며 조혜란은 서문을 쳐 파하고 드러와 금두와 후비를 다 잡아미고 성문 네 녀희 기치를 밋고와 세우고 호령이 추상갓하니 서달이 성상기발을 바라보고 더 경하여 왓 적장은 신인이라 그 모든 변병을 거두어 다라노고 올이 힐니 또 도망하니 스홍옥이 경기로 쫓쳐 산이로 묵거 정희의 쌀이니 문장군이 왓 네 다시 능히 쓰올다 하니 올이 머리를 죠호 왓 장군은 참 천인이라 다시 감히 아니반하리라 흐거늘 인하여 남거의 금왕과 후비와 두 아달을 목을 밋어 짓고 장찰 도라갈 식(권上, 55~56쪽)

이와 같이 문경천은 먼저 요금을 쳐 멸하고 진회·만사설의 인간 환생인 올이아·힐니대를 사로잡은 데 이어 국호를 송이라 하고 열읍군현에 격서를 보내 “송나라 충의장군 문경천이 육철의스로 더부러 슈스거 병하여 북으로 요금을 멸하고 장찰 송실을 회복하여 다시 천하의 조씨를 구하여 세우라 하니 충신의스 조씨를 위하는 즈여든 소리를 응하여 투예하여 붓다르라”²⁰⁾고 함으로써 천하의 忠義之心을 격동케 한다. 이에 원 황제의 명을 받고 악문용·이문영이 하북에 출정하게 되자 송나

20) <운수지> 상, 57쪽.

라 충의지사의 자손들 간에 서로 대적하는 처지가 되는데, 이때 문경천은 유인책을 써서 악문용으로 하여금 충의지심을 되돌려 이문영·진채란과 함께 송조 중흥에 동참하게 하는 한편, 원 황제가 보낸 자객에 의해 악문용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다시 이를 구원한다. 또 조씨 자손을 찾아내어 황제로 세우고 대승상 문경천·좌승상 육봉일·우승상 이문영·병부상서 한계지·이부상서 사홍옥·예부상서 장운영·간의대부 진채란·태상박사 조혜란·대사마대장군 악문용 등으로 백관의 位次를 정하여 大宋 威儀를 갖추는 한편, 황제에게 청하여 元을 멸하기 위한 남정을 감행한다. 이때 악문용이 혼인 약속을 배반한 원수라 하여 운화·월화에 의해 몇 차례 곤경에 처하게 되나, 그때마다 문경천 등이 그를 도와서 구원하고, 마침내 원 황제에게서 항서를 받고 황후와 귀비를 사로잡아 회군한다.

그 영웅을 의논하면 뜨거운 우열이 있스라...용맹이 삼군의 덩치고 위엄이 스희의 썰쳐 턱하의 당하리 업기는 악원쉬우고 풍운조화로 귀신갓치 출몰하기는 문승상 디적하기 업습고 문장지덕과 음양의니를 변호기는 니승상 당하리 업습고 독을 짜의 짜져 능히 사러니고 저근 걸 노코 큰 걸 디적하기는 녹장군 당하리 업습고 지혜로써 도적을 유인하고 용맹으로써 승훈 걸 취하기는 한계지 디적하리 업습고 충용을 격동하여 급흔눈을 닷토어 붓닷게 하기는 사홍옥의게 지나리 업습고 지도와 곡부를 총납하여 군스를 모라 운량하기는 진채란 우이 업습고 골을 막고 장막의 안즈 숨군을 진무하기는 장운영 디적하리 업습고 길흉을 발기 알고 승패를 문져 점치기는 쇼장(조혜란; 필자 주)을 당하리 업쓰올가 호니이다(권中, 133~134쪽)

이처럼 송조 중흥이 여성영웅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 황제가 황음무도하여 밤낮 풍류와 희학을 즐기는 데다 간신의 말을 듣고 악문용을 연왕에 봉하여 멀리 내치는 한편 문채운·이문영·육자란을 后妃로 삼으려 하자, 이들은 십년 功業을 일장춘

몽에 부치고 요조숙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함께 蜀으로 달아난다. 곧이어 황제가 승하하자 다시 악문용과 3처 5첩으로 결연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현모양처가 되어 지내다가 천수를 다한 뒤에는 함께 羽化登仙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운수지>에서 서사적 갈등을 이끌어가는 주 인물은 난신적자의 인간 환생인 운화·월화와 올이아·힐니대이다. 이들의 行惡이 일으키는 갈등이 <운수지>의 서사 전개에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주 動因이 된다. 그리고 작품의 결말부에서 이들이 한데 결합함으로써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다. 그렇지만 층의지사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능력이나 역량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그려진다.

운화·월화는 전생이 녹주·명주로서 악비에게 청혼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원한을 품고 훗날 남편인 진회·만사설과 공모하여 충신 악비를 반역의 혐의를 씌워 살해하고, 죽어서 풍도옥에 갇혀 있다가 옥황상제에 의해 元 공주로 환생한 인물이다. 그런데 공주의 부마로 간택된 악문용이 행례를 미루고 출정했다가 元을 배반하고 송조 중흥에 가담하자, 악문용을 상대로 갖가지 악행을 저지른다. 이름을 홍우, 이태라고 하고 송 황제를 속여 악문용의 막하에 들어가서는 이런저런 작전계획을 元 황제에게 누설하여 층의지사들로 하여금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간계를 꾸며 악문용을 鐵籠 속에 가두어 놓고는 혼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꾸짖고 혹형을 가하며 강제로 혼인하기를 요구하기도 하며, 악문용의 부친인 악현 등 3老公을 인질로 붙잡아 악문용에게 갖은 모욕을 가한다.

한편 올이아·힐니대는 운화·월화와 함께 풍도옥에 갇혀 있다가 옥황상제에 의해 金 태자로 인간 환생한 인물인데 전신이 진회·만사설이다. 송조 중흥을 위해 창의한 문경천 등이 먼저 金을 치게 되자, 이들을 대적하다가 패하여 사로잡히는 처지가 되었으나 음울을 잘하는 까닭에 樂工으로 들어가 있다가, 마침 궁옥에 구금되어 있던 운화·월화를 만나

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이 함께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역시 여성 우위에서, 여성인물이 주도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먼저 궁궐을 빠져나와 도망하다가 악현·문규·이경 등 3老公을 만나자, 이들을 인질로 붙잡아 악문용·이문영을 불러들여 元皇의 명을 좇게 하라고 협박하고, 이들이 거절하자 악문용·이문영과 혼인 약속한 것을 알리고 舅婦之禮를 갖추어 昏定晨省으로 모시는데 악처사는 일절 응대하지 않는다. 이에 악문용의 집안 내력에 익숙한 만기·하망·나환을 3老公으로 꾸며 악문용을 유인하나, 악문용이 계교를 써서 이들이 모두 만사설 등 난신적자의 후손임을 알아내고 가짜 3老公을 죽인다. 그러나 악문용이 하복을 비운 사이 운화·월화는 다시 3老公을 싣고 황성에 들어가 문경천·악문용이 조조·항우처럼 모반할 것이므로 장차 어린 황제는 獻帝·義帝가 될 것이라는 동요를 퍼뜨려 황제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그리고 황제의 謀士가 되어서는 문경천·육봉일·이문영이 모두 여자임을 알려주어 이들을 后妃에 봉하라고 하고, 또 악문용은 이미 元 황제와 혼인 언약이 있으므로 연왕에 봉하여 상도로 보내어 元 공주로 배필을 삼게 하면, 안으로는 원이 송과 다투지 않고 밖으로는 변방 오랑캐를 막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악문용과의 혼인이 충효를 다하고 절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악문용과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산중에 들어 仙道를 닦겠다고 한다.

선성이...운월의게 명하여 압희 쏘녀 왈 금과 원이 다 옛나라이라 올이힐니로 더부러 인연을 미즈면 너홀 노화 득이지 아니히리라 운월이 돈슈 왈 첩이 비록 호희나 황부 후모의 명이 잇서 다만 악원슈로 더부러 가연을 미즈란 말은 듯고 올이힐니 말은 듯지 못하여 국뵈 가망호엿스나 말이 오히려 귀예 잇느니 불헿호여 박명이 비록 득으나 화 등의 기아미라 써 황명 충효로 좇춘 옛뵈세 절의를 저버리지 아니히리니 충효절의 밝고 난 달니 구호난 비 업스오니 득기만 할 짜름이니 만일 명공의 성덕으로 누명을 달니 빌니시면 원컨더 산뵈의 드러가 기리 도스의 제즈 되고즈 하나이다(권下, 129쪽)

이에 악문용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산으로 들여보내는데, 積怨이 많은 탓에 인연이 없다고 하여 거절당하고 나오다가 전생 일을 볼 수 있는 金花 한 가지를 얻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전생이 녹주·명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 이를 올리아·힐니대에게 가져다 주어 그들이 진회·만사설의 인간 환생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이리하여 이들이 전생 배필로서 한데 결합하여 악문용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이로써 작품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는데, 악문용을 죽이기 위해 火攻을 모의하는 장면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악문룡이 녹저이낭으로 더부러 시류를 일숨어 날마드 호상놀이 즐겨 도라오기를 이겼스니 그 빈 씨를 타 팔경누 스면의 불을 못고 가만이 문룡이 밤의 도라오난 씨를 기다려 문져 화교의 불을 노화 살어 도라오지 못하게 하고 흔씨의 팔경누 전후의 불을 질너 누더를 일병 소멸하면 문룡의 팔낭이 다 불꽃 지 될거시니 니 티즈로 더부러 빅상마와 적슬마를 타고 도두하여 고국의 도라가 다시 방연을 미즈면 이 아니 득계라 (권下, 150~151쪽)

그런데 <운수지>에서 가장 흥미로운 존재는 宋의 조씨 자손으로 蜀의 富翁 卓林에게 의탁하여 산중에서 牧童 일을 하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조복이다. 충의지사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으나, 오히려 난신적자 운화·월화의 反間을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충의지사로 하여금 송조 중흥의 십년 功業을 일장춘몽에 부치게 하고, 결과적으로 吳王의 명나라 건국을 도와주게 된다. 운화·월화가 이름을 홍우·이태라고 하고, 동요를 퍼뜨려 문경친·악문용이 조조·항우처럼 모반할 것이므로 宋 황제는 장차 獻帝·義帝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스스로 황제의 謀士가 된 뒤에는 문경친·육봉일·이문영이 모두 여자임을 알려주어 이들을 后妃에 봉하라고 하고, 또 악문용은 이미 元 황제와 혼인 언약이 있으므로 元 공주로 배필을 삼게 하면, 元과 宋이 서로 다투지

않고 변방 오랑캐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황제는 이같은 反間에 속아 간신들을 가까이하고 밤낮 풍류와 희학을 즐기는 한편, 악문용을 연왕에 봉하여 상도로 내보내고 문경천·이문영·육봉일로 후비를 삼으려고 한다. 이에 충의지사들은 천운을 한탄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

턴지 일월 용봉의 기상이 업스니 국가 복조 | 오리지 아니하고 마음
과 성정이 암약하여 반다시 간신을 갖가이 흐리니 황음하기 가히 염녀
흐노라(권中, 181쪽)

습노공이 악연 실식하고 비스하고 나와 각각 부인으로 더부러 가만이
나라 화기를 말하고 양천탄왈 천운이 여츠하니 나라 복조를 가히 알지
라 이 일을 장춧 엇지하리오 하고 서로 디하여 눈물을 흘니니 밤이 맞
도록 가스를 못지 아니하고 나라 근심만 혼탄하더라(권中, 191쪽)

이에 문경천 등은 절대 미색의 양옥진을 천금을 주고 사서 궁중에 들여보내고 자신들은 멀리 蜀으로 도망하는데, 미색에 혹한 황제는 양옥진을 昭儀에 봉하고, 이어 貴妃, 皇后로 삼아 날로 황음무도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승하한다. 천하에 조씨 자손을 구하다가 끝내 얻지 못하자, 충의지사들은 이를 천명이라 하여 천하를 江南의 吳王에게 사양한 채 匹夫書生으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왕이 천하를 통일하여 명나라를 세운다. 이처럼 황제 조복은 충의지사들에 의해 제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난신적자를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충의지사들로 하여금 결국 송조 중흥의 십년 공업을 일장춘몽에 부치고 강호로 돌아가 처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황제의 모습에서 명나라 건국(1368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운수지>의 작가의식

<운수지>는 다소 방대한 분량에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함으로써 서사 전개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작품 전체에 일관하고 있는 작가의식은 다음과 같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1. 유교적 이념과 환상성

<운수지>는 충의지사들의 형상과 그에 따른 유교적 이념의 승리를 핵심 줄거리로 삼는다. 그러면서 작품의 도처에 유교의 현실주의와는 상반되는 환상성을 交織하여 사건의 機緣을 제공하거나 극적 전환을 이루면서 삽화를 풍성하게 하고 흥미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주인공 악문용은 실존인물 岳飛를 대상으로 하여 허구화시킨 인물이다. 相州 湯陰 사람으로, 자는 鵬舉이며, 전하는 말에 의하면, 등에 ‘精忠報國’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북송 말에 金에 저항하여 송조 중흥을 이루려다 화친을 주장하던 秦檜에게 반역의 누명을 쓰고 무참히 살해되었는데, 죽어서 신선이 되어 있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적강한 인물이 바로 악문용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주인공 문채운·한계지·장운영·육자란·사홍옥·조혜란·이문영·진채란도 북송 말과 남송 말의 충의지사인 文天祥·陸秀夫·韓世忠·謝枋得·李綱·趙鼎·陳文龍·張世傑이 적강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元의 비수를 사양하고 은거하며 송죽을 심어 절의를 지키는, 淸儉하고 도덕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자라서는 의병을 일으켜 金·元을 멸하고 중원을 회복하였으며, 조씨 자손을 구하여 송조를 중흥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일생을 충효와 덕행과 절의를 숭상하고 先公後私를 權度로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문채운, 악문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이 세 가지 등흔 게 잇스니 데일은 나라을 위하야 임군을 섬기미
 춤이요 그 지츠는 근친하야 명을 좇는 게 효요 그 지츠는 스름을 좇츠
 건질을 밧드는 게 네라 이 세 가지 좇치미 잇스니 어니 결을의 버기를
 편이 호고 안져 먹으리요(권中, 61쪽)

연왕 왈 소성의 평성 쇼회난 제일이 충효요 기츠난 덕행이오 기츠는
 절의오니 문낭은 한 스름이 숨결 등의 겸전하엿느니(권下, 88쪽)

이 때문에 元의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부마가 된 악문용이 도중에 元
 을 떠나 송조 중흥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 의리를 저버리는 행
 위를 하지 않는다. 충의지심이 격동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싸움을 멈춘
 채 환군을 지체할 뿐, 元 황제가 자객을 보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음을
 알고난 뒤에야 “나난 원황을 저바리지 아니하엿더니 원황이 날을 독이
 고즈 하여스니”²¹⁾라고 하여, 마침내 君臣之義와 甥賓之禮를 끊을 것을
 통지하고 자칭 大宋分義大將이라 하여 송조 중흥에 참여한다. 이리하여
 모든 충의지사들은 ‘천지에 고하고 신명에 절정하여도 부끄러움이 없
 다’²²⁾고 하고, 특히 吳王은 천하를 자신에게 사양하고 西湖八景을 찾아
 가는 악문용을 가리켜 忠孝와 仁義禮智의 高標라고 하여 극찬하고 있다.

연왕이 ...거마를 지축하야 길을 찌는 지 슈월의 금능성의 이르러 스
 스로 왕이라 일컫는 호를 업시호고 빅의 서성으로 지경의 드니 오왕이
 듯고 크게 깃거하야 刁관의 느어가 영접하야 디빈네로 디하야 선성이라
 일커러 왈 그이호고 큰지라 선성의 스업이여 옛원슈를 잡고 금노를 멸
 호고 호원을 판하니 효요 호 천호를 평정호고 어린 임군을 세우니 춤이
 요 천호를 위하야 유유의 인곡하니 인이요 천히 잇스되 스스로 서지 아
 니하니 의요 천호 씨 남을 두어 스양하니 네요 천호를 사양하고 낙도로
 도라가니 지혜라 선성은 가히 충효인의네지의 고표라 이르리라(권下,
 118~119쪽)

21) <운수지> 상, 136쪽.

22) <운수지> 상, 136쪽. “천지의 고평하야 신명의 절정하엿도 붓그러오미 업스니”

이처럼 유교 이념에 충실한 주인공들의 형상과 그에 따른 이념적 승리의 서사적 결말이 작품의 골격을 이루는 가운데 도처에 비현실적인 환상성이 상당한 비중으로 개입되어 나타난다. 작중에서 악비는 죽어 구천에 올라 진회·만사설의 不忠한 죄와 녹주·명주의 淫奸한 일을 옥황상제에게 아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옥황상제는 이들 죄인을 즉시 지부사자에게 명하여 풍도옥에 가두게 한다. 그리고 홀연 취몽에 들었다가 元 황제 천력 연간에 깨어나서는 신선이 되어 있는 악비·문천상·육수부·한세충·사방득·이강·조정·진문용·장세걸로 하여금 생전에 이루지 못한 원을 풀라고 하고, 지옥 죄인인 진회·만사설·녹주·명주와 함께 인간 세상에 내려 보낸다. 이렇게 하여 하늘이 능히 인간 세상의 길흉화복을 제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 가라스티 충의지스는 선적의 허춤하고 난적지즈는 전호의 구류하고 …송 충신 구인이 선반의 동춤하여 놀피 운무 스이에 안고 진회 등 스인은 철가를 쓰고 경호 싹여 감히 우러어 보지 못하니 상대 좌우를 도라보아 왈 천상과 인간이 비록 구만니라 하니 충의덕형 잇는 스펀이 오러와 옥경선관이 되고 춤간 난적지즈가 예 와 풍도죄인이 되니 저 인간스람이 아냐야 모르냐야 턱일이 웃고 디답호여 왈 인간글의 하엿스 오디 하날 놓고 짜하 느즈나 하날이 스펀의 회복을 능히 어거흔다 호느이다(권上, 9~10쪽)

이리하여 신선으로 있다가 적강한 충의지사들은 도중에 철관도사, 위부인 등 양육자를 만나는데, 이들은 충의지사들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해 준다. 그리고 각자 才品에 따라 수학함으로써 太乙六韜·兵法神術·八門遁甲術을 무불능통하게 된다. 이리하여 충의지사들은 千變萬化의 조화를 베풀고 도술을 부려 쉽게 위기를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가 된다.

달빛처럼 서리나리며 나는 비암이 벽틈으로 드러오니 봉일이 칼을 의지하고 날여 홀연이 변화호여 구름 스이로 청용이 공중의 날어들으며 바

를 우레를 크게 부니 나는 비압이 변하여 흰잔느비 되어 용귀 우회 안
즈니 청용이 오치를 변화하여 무지개 돌니며 용귀에 흰잔나비를 놓너
싸희 찌러지니 양쇼난 두 팔을 일코 봉일은 그 팔을 버혀가지고 영등의
도라오니라(권上, 134쪽)

승상이…하늘을 향하여 스비하고 구름을 불너 뉘축하더니 홀연 광풍
이 크게 일어나며 운위 즈옥하더니 청의동지 물 가운데서 일엽선을 급
히 더여 부인과 승상과 해란 운섬을 싣고 가는 곳을 아지 못할너라(권
中, 120쪽)

승상이 빅농담을 향하여 스비하고 옥병을 기우려 세 번 뿌리니 홀연
이 바람과 우레 크게 지여 급흔 비 들이워 어름이 되니 불이 일시에 꺼
지고 황노곡의 폭포 퍼이니 산의 물이 덥히고 북군이 머리 타고 이마
탄 지 티반이요…오병이 물의 빠진 지 닷토여 잡고 오르며 슬피 부르지
져 스름 살니라 하니(권中, 138~139쪽)

연왕이 …즉시 불근 부작을 써 더지니 홀연 일진광풍이 이러나 장막
을 거드치고 쇼효호야 등축이 써지며 우레바람이 잠간 지는난 듯하니
(권下, 67쪽)

문낭지 부작을 지여 바람 풍 우레 뇌 비 우 세 글썽을 써 공둥의 더
지고…손으로 홍효선을 두르니 서북풍이 홀연 이러느며 편운이 물너오
며 비 드리오듯 하니 불꽃치 써지며(권下, 152~153쪽)

이처럼 청룡으로 변하여 자객의 팔을 빼어버리기도 하고, 문득 일진광
풍을 일으켜 운무 자욱한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벗어나기도 하며, 혹은
적병을 물리치기 위해 산골짜기를 폭포수로 덮어버리는 등, 도처에 비현
실적인 환상성이 개입되어 있다.

또한 후반부에서 송 황제의 승하를 계기로 충의지사들이 천하를 오왕
에게 사양하고, 이를 천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白頭仙翁이 나타나 오왕
을 참 천자라고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운무 즈옥흔 가운데 흘연이 빅두선옹이 잇서 불근관을 쓰고 단려장을
 집고 표연이 압희셔 갈오디 쇼즈의 충의가 출천호고 지피 귀신 갖혀
 금노를 쓰허바리고 원을 멸혀 송실을 중홍하니 이는 선조의 빅연 슈
 원을 설치하니 장하다 쇼즈의 공업이여 충효가 구전하나 국운이 장원치
 못혀 화덕이 남의 왕성하니 강남의 춤 천즈 다시 너미 덕업이 닳터나
 스니 물너가 허복을 보존혀 천명을 순히 함만 갖지 못하다 호고 쇼미
 로셔 풍뇌 두즈 쓴 옥병을 니여 동즈로 하여금 전혀 듀어 왈 난시 급
 혼 썩를 당호거든 삼가 허쇼히 말나 하니 승상이 밧고 절혀 스펀하니
 (권中, 123쪽)

이와 함께 악문용과 8娘의 결연 과정에서 妖狐의 怪變을 계기로 악문
 용이 요술을 부려 8娘을 희롱하고, 이로써 극적으로 결연을 이루게 되는
 데, 황성으로 돌아가던 8娘이 잠시 머무는 위남촌이 妖狐의 怪變 때문에
 황폐했다고 하였다.

삼십 년 묵은 요회 잇스와 변해 불측호오미 십여 년 너의 일촌이 천
 여 지나 적은 아히덜이 츠레로 밤마다 일스오니 그 스심을 아지 못호는
 고로 샤는 빅성이 다 이산하야 거의 공허호오니 원컨디 이 짜회 유치
 못호리니 급히 전노를 향호소서(권下, 62쪽)

이어서 악문용이 요술을 부려 8娘을 희롱하는 대목에서는 “즉시 불근
 부작을 써 더지니 흘연 일진 광풍이 이러나 장막을 거드치고 쇼효하야
 등축이 찌지며 우레 바름이 잠간 지닌 듯하니”(권下, 65쪽)라고 하였
 다. 그리하여 문채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알고, 한계지·사홍
 옥이 십리 밖 절벽 위의 나무 구멍에서 문채운을 구원해 오는데, 육자관
 이 이를 妖狐라고 하여 불태워 죽이고 문채운을 수소문하나, 한동안 행
 방이 묘연해져 일대 소란이 벌어진다. 뿐만 아니라 결말에서는 운수선생
 과 8娘이 辟穀하며 선도를 닦다가 蓬萊山을 향하여 登仙하는 것으로 그
 려져 있어 작품 내에서 비현실적인 환상성을 드높여준다. 이러한 환상성

은 사건의 機緣을 제공하고 극적 전환을 이루면서, 삽화를 풍성하게 하고 흥미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유교적 이념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비현실적인 환상성은 조선후기 장편소설이 대중적 흥미를 위해서 주목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볼 때, <운수지>는 유교적 이념에 충실하면서, 아울러 대중의 독서물로서의 흥미성을 담보하고자 했던 작가의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2. 將相의 삶과 處士·神仙의 삶

<운수지>에는 충의지사들을 중심으로 將相의 삶을 지향하는 의식과 處士·神仙의 삶을 지향하는 의식이 함께 드러나 있다. 將相의 삶은 智謀才略을 갖추고 송조 중흥을 이루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出將入相을 거듭하는 충의지사들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전장군 녹봉일이 빅상마를 타고 빅운갑을 입고 청농검을 들고 습군을 지휘하여 서고 후장군 장운영은 오추마를 타고 접닌갑을 입고 이총편을 들고 후면으로 서고 좌익장군 한계지는 적교마를 타고 흑인갑을 입고 방천극을 쥐고 휘하를 난화 원편의 진치고 우익장군 스홍옥은 즈연마를 타고 벽닌갑을 입고 운무극을 뒤여 군정을 점검하며 울흔편의 진를 치고 등장군 문경천은 황뉴마를 타고 황인갑을 입고 좌슈의 홍기를 뒤고 우슈의 황월을 잡아 습군을 호령하며 종스관 조혜란은 빅우션을 뒤고 시위하여스니 진 모양은 정데하고 병위 엄숙허더라(권上, 93~94쪽)

빅관위츠를 갖추올시 문경천으로 디승상을 삼고 녹봉일노 좌승상을 습고 니문영으로 우수상을 습고 한계지로 병부상서를 하이고 사홍옥으로 니부상서를 하이고 장운영으로 네부상서를 하고 진칙란으로 간의디부를 하고 조혜란으로 티상박스를 하고...악문용으로 디스마디장군을 하여 스즈로 원슈의 병부를 밋드리 군문의 이르니 문룡이 문의 느와 스텔 하고 황명을 밋아 즉일의 스은하고 도라오니 빅관과 습군이 연하여 만세를 불너 왈 스텔년 황송 위의를 다시 오날날 보도다 문늑니 습공이 국정을 잘 다스리고 악원슈난 병마를 총녕허니 십습세 황데 가히 천자

의 근심이 업더라(권上, 147~148쪽)

턴지 공신을 크게 봉할시 죠셔를 나려 왈 네부터 그 즈식으로 써 그
아비 귀허다 하니 악현으로 충의후를 봉허여 항뒤를 버혀두고 문규로
충헌공을 봉허여 농서를 봉허여 두고 니경으로 문숙공을 봉허여 쇼뒤를
버혀두고 검니와 궤장을 주고 하씨는 정경부인을 봉허고 서시는 정숙부
인을 봉허고 덩씨는 정렬부인을 봉허고 흥씨는 정의부인을 봉허고(권中,
187쪽)

연왕이 ...빅관을 명허야 좌우반열을 열고 구슬면류와 용포옥디의 빅
마금거를 타고 문녹니 습더난 듀류옥디로 듀부치거를 타고 한스 등 오
인은 운금경상으로 난스항거를 타고 운월 양낭으로 녹늘팔음을 맞기고
올이힐니로써 용마스거를 어거허고 습천시너난 연과 수리를 호위허고
천관녹군은 응진위의를 베푸니 풍악과 정절의 성비허른 인세의 처음이
라 허더라 황성의 들막 악문니 습공이 그 위의를 찬란허물 바라보고 셔
로 도라보와 경희한 빗치 만면의 닛타느니(권下, 105~106쪽)

그러나 이와 같은 將相의 삶은 황제가 승하하고 조씨 자손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더구나 강남에서 새로
오왕이 일어나자 충의지사들은 이를 천명으로 받아들여 십년 功業을 일
장춘몽에 부치고 匹夫書生으로 돌아간다. ‘하늘이 주거든 받고 하늘이
빼앗거든 사양하는 것이 천명을 順守하는 것’²³⁾이라고 하여 중원을 오
왕에게 사양하고, 西湖風月을 벗삼아 謙退隱逸하는 처사의 모습을 다음
에서 볼 수 있다.

맛당헌 짜의 누관을 경영허여 지을시 알음다운 산을 등허고 고힌 물
을 임허야 구충디를 무어 영춘각 귀학당을 지여 습노공 스부인을 거쳐
허시게 허시고 그 아릭 봉황각과 우화당을 지여 문녹니 습낭즈로 거쳐

23) <운수지> 하, 113쪽. “하늘이 주거든 받고 하늘이 빼앗거든 사양허난 게 가위
천명을 순슈허미니”

호고 그 아리 비취당 응향각 경호루 취미디 슈선정을 지여 한샤 등 오인이 연호여 잇게 호고 그 아리 오산팔경누를 지여 장호 십니를 통창호고 금능구곡를 부감호니 크게 산슈의 승경을 불너라(권下, 120쪽)

이데 선성이 필부서싱으로 산슈풍월과 시듀성식의 즐기미 잇셔 산의 울오지 아니코 무엇호며 물을 입호지 아니코 무엇호며 풍악 듯지 아니코 무엇호며 식을 조화 아니코 무엇호며 바람을 읊지 아니코 무엇호며 달을 읊지 아니코 무엇호며 가히 시 아니코 무엇호며 술 아니 마시고 무엇호며 이 여덟 가지 조흔 아름다오미 잇스니 하나하나 즐기지 아니호즉 두려호건더 운슈의 조쇼가 되고 만고의 즐장부를 면치 못호리이다 선성이 쇼왈 이낭의 말이 올타 호고…이제 니가 천지간의 일 없는 호가호 스흘이 되야스니 성식과 시듀를 부르고 겸야야 호산풍경을 어더스니 즐기지 아니코 무엇호리오(권下, 122~123쪽)

이렇게 처사의 삶이 匹夫書生으로 한가하게 살면서 山水風月과 詩酒聲色을 즐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작품의 결말에 이르면, 운화·월화·올이아·힐니대가 또다시 한데 결합하여 악문용과 그의 3처 5첩을 불태워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도리어 악문용에게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는데, 이때 악문용은 그들의 이마에 전생 성명을 쓰고 칼로 마디마디 베어 죽이는 것으로 원수를 갚는 한편, 그동안 詩酒聲色이 너무 변화하여 조물의 회룡을 받아 이같이 상서롭지 못한 일을 당한 것으로 자책한다. 그리하여 삶의 방식에서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바, 3처 5첩과 더불어 安貧樂業으로 지내며 巢父·許由를 벗하고 赤松子를 구하는 것으로, 神仙의 삶을 지향한다.

이제로부터 호산 누더로 강남지즈를 허호여 듀고 데낭으로 더부러 몸쇼 밧갈고 안빈낙업을 호라 호고져 호노라 문낭이 쇼왈 임천의 숨은 이도 쏘호 군즈라 선성이 천호 부귀를 웃고 성식의 변화를 슬타 호고 이제 말근 복을 슈플 아리 구호고즈 호니 첩등이 즐겨 명을 드르이다(권下, 157~158쪽)

이제 우리 선성은 천허부귀를 고두하고 황가의 괴로움을 크게 웃서쓰
오니 엇지 구구히 일흠을 오난 세상의 전코져 흐리오 이제 우리 원하나
니...능연이 청허흔 세계의 초요하여 쇼허로 더부러 위림하고 적송즈와
왕교군을 구하여 짝을 지여 진세의 형적이 업고 후세의 성명이 업스면
스름의 지극흔 도리 아니라(권下, 163쪽)

이리하여 악문용과 더불어 3처 5첩은 마침내 신선이 되어 다시 천상
에 오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대해 “팔낭과 우화하여 공동의 올라
흔바름 돛대를 어거하여 동희로 부상을 지나 벽계를 뚫고 봉니습신산을
바라보고 가니라”²⁴⁾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운수지>는 송조 중흥의 과정을 통하여 將相의 삶을 지향
하는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한편, 오왕의 등장과 송 황제의 승하를 계
기로 處士·神仙의 삶을 적극적으로 그려 놓았다. 그에 따라 한 작품 안
에 다소 부조화한 모습으로 將相·處士·神仙의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작가는 이러한 삶이 마치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것과 같으며, 또 물이 찻다가 기울고 기울었다
가는 다시 차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낭이 왈 구름이 허흔 디 이러나 두로 하늘의 가득하였다가 잠간 스
이의 허흔 디 도라가고 물이 저근 디 식여 스희의 가득 좃다가 변연이
다시 저근 디 나아가니 이계 천지 흔 괴운이 왕성하고 쉬는지라 디지
우리 무리가 허미흔 스이의 괴병하여 위엄이 스희에 썰치고 공업이 천
흐의 덤혀스니 구름과 물이 두로 가득히 춤 갖흔지라 그 천허로써 남의
게 스양하야 듀고 강남풍월 두어 도로 공동의 도라오니 구름과 물이 다
시 허무흔 디 도라감 갖흔지라 비야흐로 죠흔 누디와 가무성식으로 아
름다운 손을 맞는 게 쏘흔 구름과 물이 츠 모이는 것과 갖흔지라 그 명
월노 남을 허하여 듀고 어초의 흔적하여 표연이 훗터지니 쏘흔 운수의
다시 허흔 디 도라감과 갖흔지라 이제 우리 손의 나무하고 물의 낙시하
여 썩집 팔구간의 동낙하여...구름 훗터지고 물 허흔 것과 갖흔지라 빅

24) <운수지> 하, 164쪽.

년 형적이 흘연이 훗터져 잇스미 업도다(권下, 160~161쪽)

이처럼 뜬 구름과 흐르는 물을 빗대어 한결같지 않은 인간의 삶을 곡진하게 설파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일생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기 마련이어서 마치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고 물이 기울었다 차는 것과 같은 이치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다소 부조화한 모습으로 공존하는 삶의 방식들은 각기 그 나름의 의의를 지닌 채 한 인물의 생애 과정 안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사에 흥망성쇠가 거듭된다고 하고, 이를 천지 만물의 자연스런 이치라고 인식하여 자신의 생애 과정 안에 포섭하는 것이야말로 곧 인생에 達觀한 경지가 아닐까 한다. 끝으로 작품의 題名이 雲水誌인 까닭도 바로 이와 같은 작가의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VI. 마무리

본고에서 처음 학계에 소개하는 필사본 장편 국문소설 <운수지>에 대하여, 작품의 성립 과정, 서사 전개, 인물 형상,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그 특징적인 면모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운수지>의 제재적 원천은 이른바 岳家軍小說의 초기 작품으로, 明嘉靖 31년(1562)에 간행된 熊大木(熊鍾谷)의 <大宋中興通俗演義>를 번역한 <武穆王精忠錄>으로 확인되었다. 이 작품은 '映嬪房'이라는 藏書印과 함께 筆寫記가 있어 영조 36년(1760)에 궁중에서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운수지>는 <武穆王精忠錄>의 내용을 간추려 서두에 제시하고, 이어 元末을 배경으로 하여 옥황상제가 宋朝의 충의지사와 난신적자를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 각자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결구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작가의 창의성에 의한 허구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그

리고 성립 연대는 대략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운수지> 각권 말미에는 筆寫記가 있어 이르면 1809년에서 1810년, 늦으면 1869년에서 1870년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사실은 실제로 필사 양태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방각본이나 활자본이 없는 데다 한글 필사본이 유일본으로 전해오고 있어, 성립 연대를 필사 연도와 거의 같은 시기로 잡는다 하더라도, 19세기 중엽에는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운수지>라는 題名은 작품의 결말부에서 보듯이, 寒微한 처지에서 起兵하여 송조 중흥을 이루고, 다시 匹夫書生으로 돌아가 詩酒聲色을 즐기며, 마침내 안빈낙업으로 仙道를 구하게 되는, 악문용을 비롯한 충의지사들의 생애를 주제로 한 작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서사 전개 of 중심축은 옥황상제가 점지한 대로, 충의지사와 난신적자 간의 투쟁과 복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여러 주변 인물들이 등장하여 남녀의 결연 및 가족의 이산과 재회 등 다양한 갈등을 엮어 나간다. 특히 난신적자인 운화·월화의 行惡이 작품의 서사 전개의 중간 중간에 끼어 들어가 여러 갈등을 일으키며 작품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 난신적자들이 한데 결합하여 충의지사들을 몰살시키려고 불을 지르는 데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가 해결의 대단원에 이르는 양상을 보여준다.

<운수지>에 등장하는 인물 군상은 충의지사와 난신적자로 대별되며, 또한 보조적 인물들이 이들을 돕는다. 충의지사에는 남주인공 악문용을 비롯하여 8명의 여성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才德을 겸비하고 충효겸전하여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들 중 특히 주목되는 존재는 악문용의 형상인데, 전생이 岳飛인 악문용은 처음 胡元에 失節하게 되나, 송조 중흥을 위한 倡義에 동참한 후로는 끝까지 조씨 왕조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리고 여주인공들은 文天祥·韓世忠·張世傑·陸秀夫·謝枋得·趙鼎·李綱·陳文龍이 적강한 인물

들로서, 한결같이 자색이 뛰어나고 기예에 능할 뿐 아니라 지혜와 용맹, 變化之術이 龍虎를 능가하여 귀신도 측량치 못하는 병법의 신인들로 그려진다. 이에 송조 중흥이 여주인공들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 지거니와, 황제가 승하하자 이들은 다시 악문용과 3처 5첩으로 결연한다. 그리고 강남에서 일어난 오왕에게 천하를 사양한 후 풍월주인으로 詩酒聲色을 즐기기도 하고, 또 安貧樂業으로 仙道를 구하기도 하다가 함께 羽化登仙한다.

<운수지>에서 서사적 갈등을 이끌어가는 주 인물은 난신적자의 인간 환생인 운화·월화와 을이아·힐니대이다. 이들의 行惡이 일으키는 갈등이 <운수지>의 서사 전개에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주 動因이 된다. 그리고 작품의 결말부에서 이들이 한데 결합함으로써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다. 그렇지만 충의지사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능력이나 역할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그려진다. 이와 함께 <운수지>에서 가장 흥미로운 존재가 충의지사들에 의해 황제가 된 조복인데,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어 황음무도한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난신적자를 돕는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승하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같은 황제의 모습에서 명나라 건국(1368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운수지>에는 충의지사들의 형상과 그에 따른 유교적 이념의 승리가 작품의 중심축이 되고 있으나, 작품의 도처에 사건의 機緣을 제공하고 삽화를 풍성하게 하며 흥미를 고조시키는 비현실적인 환상성이 빈번하게 개입되어 나타난다. 충의지사들은 淸儉하고 도덕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일생을 충효와 덕행과 절의를 숭상하고 先公後私를 權度로 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 결과 악문용은 忠孝와 仁義禮智의 高標라고까지 극찬을 받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신선으로 있다가 적당한 인물들로 太乙六韜·兵法神術·八門遁甲術에 무불능통하여, 千變萬化의 조화를 베풀고 도술과 요술을 부리는 까닭에 비현실적인 환상성이 도처에 개입되어 나타나며, 작품의 결말 또한 이들이 함께 선도를 닦다가 蓬萊山을

향하여 羽化登仙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유교적 이념을 압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운수지>가 유교적 이념에 충실하면서, 아울러 대중의 독서물로서의 흥미성을 담보하고자 했던 작가의 욕망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한편 송조 중흥을 이루는 과정에서 智謀才略을 갖춘 將相의 삶을 그려낸 데 이어 십년 功業을 일장춘몽에 부치고 西湖風月을 벗삼아 謙退 隱逸하는 모습을 통해 처사·신선의 삶을 그려놓았다. 이리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한 작품 안에 다소 부조화한 모습으로 공존하는 형국이 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사에 흥망성쇠가 거듭된다고 하고, 이를 천지 만물의 자연스런 이치라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각기 그 나름의 의의를 지닌 채 한 인물의 생애 과정 안에 포섭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가 의식은 인생에 達觀한 경지를 엿보게 한다고 보았다.

주제어 : 雲水誌, 武穆王精忠錄, 성립 과정, 서사 전개, 인물 형상, 忠義之士, 亂臣賊子, 작가의식, 유교적 이념, 환상성

참고문헌

- 곽충구, 18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4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0, 1-128쪽.
- 김주필, 18세기 역서류 문헌과 왕실문헌의 음운변화 - 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권 2호, 어문교육연구회, 2005, 29-57쪽.
- 김희영 편저, 『이야기 중국사』 2, 청아출판사, 1997, 1-549쪽.
- 박덕규 편저, 『중국 역사이야기』 10, 11, 일송북, 2005, 17-230쪽, 207-254쪽.
- 박재연, 낙선재본 「당진연의」·「무목왕정충록」에 대하여, 『한국고전문학연구』(낙은강전섭선생화갑기념논총), 창학사, 1992. 519-553쪽.
- 진순진, 『중국의 역사』 8, 한길사, 1995, 1-320쪽.

<Abstract>

A Study on *Unsoochi*(雲水誌), a korean classical novel which is excavated recently

Kwak, Jung-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formative process, the narrative expansion, the character's figuration and the writer's consciousness of *Unsoochi*(雲水誌) which is excavated recently as a korean classical novel and introduced into ascientific treatise for the first time.

First of all, *Unsoochi*(雲水誌) was created as a korean classical novel by the material of *MumokWangChongchungnok*(武穆王精忠錄) which was translated on 1760, as a translation of *TaesongJunghungTongsyokYeonui*(大宋中興通俗演義) and the time of creation is presumed to be the late 18th century and the mid-19th century.

Secondarily, The stem story is the struggle and the vengeance of traitors and men of loyalty and uprightness in *Unsoochi*(雲水誌), which is arranged beforehand by the highest of the heavenly gods of Taoism. In addition, several subsidiary characters enter the stage and plait forming the relationship of male and female, scattering of a family and so forth on. Especially the evil deeds of traitors bring about the struggle and the interest.

The third, the character's group, appeared on *Unsoochi*(雲水誌) are divided into as a man of loyalty and uprightness and a traitor in the

large, and subsidiary characters help them. A man of loyalty and uprightness is described as a figure to be faithful to Confucianism.

The figuration of men of loyalty and uprightness and the triumph of Confucianism are the central axis in *Unsoochi*(雲水誌), but the impracticable fantasy is appeared throughout the work, and the consciousness intending to the general and the premier dominates the work, also the consciousness intending to a scholar in retirement and a Taoist hermit with supernatural powers are appeared everywhere.

Key Words : *Unsoochi*, *MumokWangChongchungnok*, formative process, narrative expansion, character's figuration, a man of loyalty and uprightness, a traitor, writer's consciousness, Confucianism, fantasy